

현직 프리미엄이나 힘 있는 여당 후보나

6·13 격전지를 가다

■ 광양시장 후보

■ 광양시장

‘깨끗한 현역 시장 후보’ 대 ‘문재인 정부 지원 받을 수 있는 여당 후보’

광양시장 선거는 재선을 노리는 무소속 정현복(68)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김재무(58) 후보의 양강대결 구도 속에 바른미래당 김현옥(73) 후보와 무소속 이욱재(63) 후보의 추격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게 일반적 분석이다.

광양에서 만난 시민들도 이 같은 분위기를 그대로 전달했다. 택시기사인 김모(52)씨는 “광양은 외지인들이 많아서 전남의 다른 지역과는 다른 표심을 보여왔는데 이번에는 다른 것 같다”면서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민주당 후보를 찍어야 한다는 사람이 많다”고 전했다.

반면 버스터미널에서 만난 신모(47)씨는 “지방선거는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인 만큼 지역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중요하더라”며 “지난 4년 동안 무난하게 시정을 이끌어온 현역시장에 대한 평가가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당선을 다투는 정 후보와 김 후보는 4년 전 지방선거에 이어 재대결을 펼치고 있다. 지난 선거에서 정 후보는 36.5%의 득표율로 30.5%를 얻은 김 후보를 눌렀다.

광양은 호남과 영남의 접경지역이자 광양제철소(포스코)가 있어 외지인 비율이 40%가 넘고 20~40대의 젊은 유권자 비율도 높다. 이 때문에 각종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가 강세를 보여왔고 보수정당 지지표도 10% 이상 꾸준히 나왔다. 특히 진보 정당 후보의 강세가 두드러지기도 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이성용 당시 시장이 무소속으로 승리, 3선에 성공한 바 있어 광양시장 자리에는 8년여동안 특정 정당이 받을 불이 없었다.

이처럼 복잡한 지역 표심 때문에 선불리 지방선거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다는 게 광양지역 정치권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실제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는 오차범위 내에서 혼전을 벌이고 있다.

	김재무 58·민 정당인	김현옥 73·바 정치인	정현복 68·무 광양시장	이욱재 63·무 발명가
재산	21억5876만원	4억2900만원	22억5910만원	6496만원
병역	병역필	병역 미필	병역필	병역 미필
세금	2억7471만원	1461만원	8441만원	774만원
전과	전과 6건	전과 1건	전과 없음	전과 5건
학력	순천제일대 경영과	조선대 법학과	한려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주요 공약	·국내 유일 스타에니랜드 건립 ·4차산업 창업센터 설립 ·광양보건대 정상화 추진 ·도립노인전문병원 유치 ·노후생활보장 '지자체 연금' 도입	·교육문화재단 설립 ·백운산에 화장품 제조공장 조성 ·노동환경 개선 위원회 설치 ·좋은일꾼 만들기 운동센터 설립 ·육질계 화력발전소 저지	·호남 최대 어린이 테마파크 건립 ·중·금호권역 해변공원 조성 ·섬진강권역 뱃길 복원 ·인사·덕례·도이지구 개발 ·청년창업공간·청년점포 조성	·동서대통합 경전특별도 건설 추진 ·200만대 생산 자동차 공장 건립 ·랜드마크 888m 세계 제1탑 건설 ·경비행기 제조·관광산업 육성 ·백운산·섬진강 관광자원화

무소속 정현복-민주당 김재무 양강 구도

각종 여론조사서 오차범위내 혼전 양상

외지인·젊은층 많아 무소속 강세

바른미래 김현옥·무소속 이욱재 선전 여부 관심

30% 정도의 부동층 표심을 얻는 후보가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일단 선거구도는 '현역 시장의 프리미엄'이나 '문재인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당 민주당 후보'나의 대결로 펼쳐지고 있다.

정 후보 측은 지난 4년 시정을 펼치며 광양 곳곳을 누벼 인지도도 높고 특히 광양읍과 농촌지역 등에서 유리한 국면을 조성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 중마동 등 신도심에서도 처음에는 김 후보에게 밀렸으나 이제는 경합하는 상황이었다며 전체적으로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정 후보 측 인사는 “4년 동안 안정적으로 시정을 이끌어 오면서 구축한 네트워크 때문에 어느 후보보다 현역 프리미엄이 크다”며 “김 후보 측은 민주당 바람과 당 조직에 기대를 걸겠지만 정책과 인물을 내세우고 민주당 바람 차단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 후보는 민주당 영향력이 더 큰 신도심에서 우세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 초반 밀렸던 광양읍 등을 집중 공략, 격차를 크게 줄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 후보를 앞서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민주당의 힘과 조직이 선거 막판 집중되면 무난히 승리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김 후보 캠프 관계자는 “정 후보 측의 네거티브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으며 힘 있는 여당 후보를 찍어야 광양 발전을 이끌 수 있다는 주장이 시민 사이에서 계속 확산하고 있다”며 “홀로 싸워야 하는 무소속 후보보다는 민주당 중앙당과 전남도당의 전폭적 지원을 받은 김 후보가 선거가 다가올수록 격차를 벌이며 승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역별 표심이 약간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정 후보 측은 광양에 정파 인구가 어느 지역보다 많으며 혈연에도 기대를 거는 눈치다. 두 후보간 박빙의 대결이 계속되면서 승

패를 좌우할 요소는 결국 투표율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양 정치권 관계자는 “원래 광양읍의 투표율이 중마지구 등 신도심보다 높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으면 정 후보가 유리하고 투표율이 높으면 김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부동층이 투표에 많이 참여하는 것이고, 그 부동층은 신도심에 더 많다고 볼때 민주당의 김 후보에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9전10기를 노리는 김현옥(73) 후보와, 발명가라는 이색직업의 무소속 이욱재(63) 후보의 선전 여부도 관심사다.

김 후보는 교육문화재단을 설립해 무너진 공교육을 바로 세우고 문화·역사를 토대로 한 도시를 건설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공격적인 외자 유치로 백운산 기슭에 화장품 제조공장 조성, 노동환경 개선 위원회 설치, 좋은일꾼 만들기 운동센터 설립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전남·경남 11개 시·군을 합한 동서대통합 경전특별도 건설 추진, 광양제철소 연계 연간 200만대 생산 자동차 공장 건립, 광양시 랜드마크 888m 세계 제1탑 건설, 경비행기 제조 및 경비행기 관광산업 육성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수랑공원 개발 규모 대폭 후회 차순위업체들 반발 거셀 듯

광주시, 개발행위 설명회

수랑공원의 개발 규모가 우선협상대상자의 최초 제안서보다 크게 후퇴했다. 광주시가 협상과정에서 중앙·일곡공원 등이 포함된 2단계에 준하는 수준을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 비행안전 6구역에 해당돼 고도를 낮춰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차순위업체들이 우선협상대상자의 최초 제안서가 비행안전구역을 침해했다고 시에 이의를 신청하고 법원에 '사업협약 체결금지 가처분'을 낸 상태여서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시는 5일 오후 광주시지방공무원교육원 대강당에서 '수랑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제안서 설명에 나선 우선협상대상자(가칭)오렌지이앤지 컨소시엄은 공원 면적 29만6211㎡ 가운데 24만6239㎡(83.1%)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4만9972㎡를 비공원시설인 아파트로 개발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비공원시설 면적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최고 20층 규모의 아파트 964세대를 공급하겠다는 안이다.

최초 제안서에서 오렌지이앤지 컨소시엄 측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 최고 29층까지 짓겠다고 했으나 최근 시와의 협상 과정에서 이 같이 조정했다. 용적률도 298%에서 219%로 낮아졌다.

이날 설명회에서 소총동한 주민은 “주변 아파트가 모두 10층에서 15층인데 20층도 과분하다는 생각”이라고 지적했으며, 한 토지소유주는 “가축목 40기가 공원 내에 있는데 어떻게 보살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시 관계자는 “이는 최종안이 아니며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공원위원회 등의 심의나 관련 실과 협의 등의 절차에서 수정될 수 있다”며 “비행안전구역 관련 기밀 제1점투비행단이 구체적인 건축행위에 들어갈 경우 재협의하라고 통보해와 앞으로 남은 협상, 심의, 협의 등 행정절차 과정에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20층 미만으로 높이가 재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작성한 최초제안서의 내용이 대폭 변경되면서 탈락한 차순위업체의 반발은 커질 전망이다. 차순위 업체는 처음 제안서를 제출할 때부터 비행안전구역을 감안, 아파트 높이 등 개발 규모를 기존에 맞춰 제안서를 작성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협상과정에서 수정하고 있지만 최소한 그 결과가 차순위업체가 받은 점수보다는 높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점수를 조절해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개발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의미다.

시는 오는 8일에는 송암공원(오후 3시 남구청 대회의실), 12일 봉산공원(오후 2시 남부대 산학관 세미나실) 등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마름·수랑공원의 경우 차순위업체들이 ‘제안서 내용이 비행안전구역에 저촉된다’며 시에 이의를 신청하고 법원에 ‘사업협약 체결금지 가처분’을 냈으며, 송암공원은 토지소유자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의 교육부지(교지)가 포함돼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

광주시 에너지신산업산단 조성 탄력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지정과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광주시가 추진하는 에너지신산업 산단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오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는 에너지와 연관산업의 기업·기관·연구소 등이 집적·협력해 비용감소·기술혁신 등의 효과를 내는 클러스터를 말한다.

광주시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 국경과제 에너지신산업과 연계한 ‘에너지밸리 조성’과 대선 공약 ‘대한민국 에너지신산업 메카도시 조성’을 준비하기 위해 지

난 3년간 특별법 제정에 매진했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되면 해당 지역은 정부로부터 에너지 관련 기반 시설 조성,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지원, 전문연구·인력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 등을 받는다.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연구 개발 센터, 창업·수출지원 센터, 시험·평가기관, 전문기술 교육센터 설치 사업도 지원한다.

또 해당 융복합단지에서 중점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에 특화된 기업을 에너지 특화기업으로 지정해 지방세 감면·연구 개발 지원·생산 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혜택도 준다. 관련 대학·연구소·단체 등을 전문연구기관 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해 연구개발·인력양성 등의 비용을 제공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김재무 더불어민주당 광양시장 후보가 5일 거리에서 만난 유권자와 손을 잡고 있다.



정현복 무소속 광양시장 후보가 5일 거리에서 선거 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밝은광주안과의 새이름

신세계안과

7월 1일 이름을 바꿉니다 (현 의료진 그대로)

- 2013년 3D스마일수술 도입
- 3D스마일수술 15,000건 기록 (2018년 2월 28일 기준)
- 레이저 다초점 노안, 백내장 교정술 시행

1566-9988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농촌의 새로운 희망

농림축산식품부, 에너지관리공단, 농협

농촌 태양광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가능

직접 운영하실 분 ▶ 평판 있으면 발전 설비해 드립니다. 원금, 이자 빠고 6~8% 가능

장기 임대주실 분 ▶ 20년후 기부체납 (임대비 선불로 드립니다)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200KW설치시 연금처럼 월 500만원 교박교박 (25년동안 년평균 6,000만원)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해가온에너지 (주)해가온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